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경찰 충격에 한인 사망 ... 과잉진압 의혹

(LA 한인타운)

가족들 경찰에 도움 요청
“병원 데려가게 도와달라”
사전 파악에도 충격 가해
도미니크 최 “신중히 수사”



2일 LA한인타운에서 경찰의 충격으로 사망한 한인의 유가족들이 사건현장인 자택 부근에서 비통해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남성이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쯤 LA한인타운내 그레머시 플레이스 인근 다가구 주택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LAPD 브루스 보리한 공보관은 “정신건강 클리닉(mental health clinician)”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을 든 용의자를 마주했고 용의자는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리한 공보관은 “이전에도 용의자의 정신질환 문제로 수차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남성은 LA지역에서 미국 대학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온 Y씨의 아들(40)로 확인됐다. Y씨는 “정신질환

을 앓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정신건강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가족들은 경관 지시에 따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도착한 경관들에게 가족들은 미리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경관 7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경관들은 진입 전부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테이저건도 있었는데 총을 쏘

진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간 그는 “경관 말로는 아들이 4차례 총에 맞았다고 하더라”면서 “그렇게까지 총격을 가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숨진 남성의 어머니도 아들이 사건 당시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집안에 있었을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이전에도 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숨진 남성의 쌍둥이 동생은 이날 현장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건강국 직원들의 도움도 없이 형에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찰이 형을 죽인 것”이라며 “가족들의 질문에도 경찰은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보리한 공보관은 “경관이 발포할 수 있는 전체 조건은 경관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용의자가 할 때”라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 상황이 녹화된 현장 출동 경관의 보디캠 공개가 매우 중요해졌다. 담긴 내용에 따라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APD 도미니크 최 임시 국장 역시 취임 당시 최근 경관 총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 최 임시 국장은 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경관 발포 규정은 즉각적인 위협, 합리적 대응 이유가 있을 때인데 무엇보다 용의자의 행동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관계기사 4면 장수아·김경준 기자

볼티모어다리 “28년 재건 예상” 공사비 17~19억달러

메릴랜드 교통부가 붕괴된 볼티모어 프랜시스 키 브릿지를 2028년 가을까지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아직 예산검증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총공사비가 17-19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부는 다리 파손 등의 커버리지로 가입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1차 보험금으로 3억5천만달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험 커버리지 한도가 3억5천만달러인지, 추가적으로 1억5천만달러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욱재 기자



4월 고용증가 17만5천건에 그쳐·실업률 3.9%

과열 노동시장 냉각 시사
‘골디락스’ 수치에 월가 환호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그동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3월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

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천건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다. 또한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24만2천건)에도 크게 못 미쳤다. 4월 실업률은 3.9%로, 3월의 3.8%에서 증가하며 전문가 전망치(3.8%)를 웃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0.3%)에

못 미쳤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률은 둔화는 미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 초과수요에 기반한 뜨거운 고용시장은 그동안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약화를 시사하는 4월 고용보고서를 두고 월가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보고서라며 환호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웨에 따르면 이날 고용지표 발표 후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오전 9시 현재 4.50%로,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8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같은 시간 4.78%로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11bp나 급락했다. 뉴욕증시 개장을 앞두고 3대 주가지수 선물 모두 전장 대비 1% 안팎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들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이재명 “거부하는 자가 범인” 대통령실 “야당 입법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처리 하면서 여야 사이에 가늘게 이어지던 협치의 가능성을 휘발시켰다. 바로 다음날인 3일부터 강(強) 대 강 충돌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범인’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고,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개 반박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 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번 대선 경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 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선 국회 해병대전우회장 출신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섰다. 그는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수용하는 걸 ‘직무유기’라고까지 표현했다.

여권에선 특검법안 내용도 처리 과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이다. 홍수석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홍수석은 “여야 합의로 더더욱이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요구

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특검은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는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을 비롯해 “수사 가로채기”(최형두 의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윤상현 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시점(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구성(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공표(수사과정 브리핑)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범인’ 언급에 대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년센스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한 지 며칠 되었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박하잖아”라고 꼬집었다. **현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행복한 노후 위해 더 세심한 정책”
최소 연간 30조원 재원 마련 과제
대통령실 “9일 취임 2주년 회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늘어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돼도 모두가 4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 수준별 차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이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월 40만원 지급 시 최소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 단위에서 보다 실증적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우리가 볼 때 9일이 적임”이라며 “내(윤 대통령)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 부터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향수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규정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취지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영부인 금품 수수 의혹이란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범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은 다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9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 또는 반환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수사팀은 또 고발장에 뇌물 혐의도 적시된 만큼 금품이 윤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이 경우 최 목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청탁 현안이 있는지와 직

무 관련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최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미묘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직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해 왔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해서만 전담팀 구성 지시가 내려간 것을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검법 발의를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다목적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일) 69-64	8일(수) 85-68
6일(월) 78-64	9일(목) 80-61
7일(화) 80-67	10일(금) 69-58

5월 4일(토) 56~5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투객 리스팅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Bowie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Rockville \$280,000 콘도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5	Ellicott City \$689,000 싱글홈, 랜치 스타일 좋은 학군, 0.75 에이커
Cook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Columbia 싱글홈, 방4, 화2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	Cockeysville \$449,000 싱글홈, 방4, 화2.5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한인 연방하원 의원 또 한 명 탄생할까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하원 의원은 가능할 것인가.

메릴랜드 연방하원(3지구)에 도전 중인 마크 장(사진) 후보가 14일 예선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주 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서 활동해온 장 후보는 한인 사회는 물론 범 아시아계에서도 주목 받으며 이번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는 메릴랜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어 볼티모어와 포토크 강을 오가며 성장한 대표적인 2세 한인 정치인이자 3선 주의원이다.

지난 하반기와 올해 초 전국을 돌며 지지세를 몰아 결선 진출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장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메릴랜드 3지구에는 민주당 후보로 11명이 출마한 상태이며, 이중 해리 던 후보가 1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후보도 9명이 난립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던 후보는 2020년 1월 6일 의사당 군중 폭력사태 시 연방의회를 지킨 경비경찰 출신으로 이미 2022년에 책을

메릴랜드 민주당 마크 장 후보 주 하원의원 3선... 지지율 4위 40%가 후보 못 정해 혼전 양상



출간하고 이후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그는 무려 377만 달러를 모금해 실탄 면에서는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불허한 상태다.

민주당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던 후보는 22%를 차지했다.

2위에는 사라 엘프레스 주 상원의원으로 18%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계인 클라렌스 램 후보가 8%, 장 후보는 4위로 1%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44% 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혼전 양상을 여실히 반영했다. <본보 4월 19일자 A1면 보도>

후원회를 통해 장 후보를 돕고 있는 강창구 워싱턴민주평통 전 회장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기대를 걸어 본다”고 전했다.

동시에 후원 모임 측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등에서 해당 3지구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2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후보도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는 “끝까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메릴랜드의 첫 아시아인자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사설

다가온 예선, 앤디 김 지지 필요하다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탄생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6월4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후보(민주당)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존 페더먼 연방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등은 이미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뉴저지주 민주당 거물인 스티브 플립 저지시 시장의 지지도 확보했다. 더구나 유력 경쟁자로 언급됐던 태미 머피 후보가 사퇴한 상황이라 11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뉴저지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지난 50년간 이곳에서 공화당 출신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다. 따라서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

남은 기간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중요하다. 뉴저지주 예비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5월14일이다.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후원금 전달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한인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은 한인 이민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다. 연방 상원의원의 무게감이 하원의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 사회의 위상도 몇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김 후보는 “나의 당선은 더 많은 한인이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당선이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이다.



“5·18민주화 운동 중요성, 더욱 인정 받을 것”

44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워싱턴 지역 기념식이 오는 18일(토)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거행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준비위원회 고대현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치환 장로(김대중기념사업회 워싱턴 대표·사진 오른쪽)는 본보를 찾아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논란화 하는 5·18민주화 운동이 언젠가는 3·1 운동과 같은 ‘폭력적 세력에 저항한 민족적 운동’으로 평가 받고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역

시 4·19의거와 마찬가지로 4헌법에 수록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의 밑거름을 이룬 것이 5·18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워싱턴의 5·18 기념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념식 이상으로 (규모와 내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한인 차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는 뜻있는 동포들의 성원이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페스트라이쉬 박사의 ‘남다른 한국 사랑’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주최 강연회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이 주최하는 통일강연회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사진) 박사를 초청, 오는 7일(화) 오전 11시30분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회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반도 통일의 길’이 주제이며 경희대



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페스트라이쉬 박사의 한국에 대한 진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사는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학자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했으며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만열’이라는 한국이름도 갖고 있다. 박사의 저서로는 ‘연암 박지원의 단편소설(2011)’,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2011)’,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2016)’,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2017)’, ‘한국의 보물(2020) 등이 있다.

강연회는 무료 입장,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문의: 202-577-3284 (김유숙 회장)

김윤미 기자

이대동창회 장학금 모집



이화여대 동창회 워싱턴 DC지회(회장 이지은)가 워싱턴 DMV지역에 거주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두명을 선발해 각각 1000달러, 총 2000달러를 지급 계획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월)까지, 신청방법은 웹사이트(ewhadchapter.org)에서 ‘장학금 안내’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문의: admin@ewhadchapter.org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통에 관한 일은 선택 - 옴니와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진보형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 철저한 조사 필요

올해 들어 경찰 총격 9건 이상 LAPD 대응 방식에 비판 여론 최 국장 '현명한 대처' 요구에도 인력 부족해 현장 긴장감 팽배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의 형제라고 밝힌 Y씨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한인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LA경찰국(LAPD)의 공권력 과잉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숨진 남성은 치료시설로 옮기기 위해 가족 측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변을 당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취임한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이 사건 현장에서 경관의 현명한 대처를 강조한 만큼 이번 사건 진상조사와 대응이 주목된다.

LAPD는 마이클 무어 전 국장 때부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총격 건수가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현재 LAPD 경관수는 약 8908명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캐런 베스 LA시장은 9500명까지 증원 목표를 세웠다.

LAPD 경관부족 사태가 사건현장 경관에 의한 총격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임시국장은 LA타임스 등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밝힌바 있다.

LAPD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만 경관의 총격 발생 건수는 최 임시국장 취임 이후 4건을 포함해 9건 이상이다. 이 중 2건은 경관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2023 무력 사용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관 34명이 사건현장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는 전년 31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현재 최 임시국장은 경관의 총격사건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관의 총격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LAPD는 경관의 총격사건 2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1건은 4800 토런스 블러바드에서 LAPD경관과 연방 마셜이 용의자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른 1건은 LA다운타운 스킵로 샌피드로 스트리트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이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향해 총을 쏘았다. 두 사건으로 인해 경관 1명, 시민 2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3월 7일 54가와 맨해튼 플레이스 지역에서는 출동한 경관이 가짜 총을 들고 있던 정신질환 남성을 사살해 비판이 고조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경관이 대처 중이던 남성이 가짜 총을 버린 뒤에도 계속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2월에는 거주 경찰이 2021년 7월 26일 피코유니온 지역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총을 쏘아 숨지게 한 경관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사건 당시 경관들은 1차 총격 후 용의자가 흉기를 떨어트렸음에도 2차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관의 총격사건과 관련 최 임시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신건강 문제를 앓던 한인이 가족 측의 도움 요청 과정에서

경관 총에 목숨을 잃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최 임시국장은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이 14일 뒤 현장복귀하는 규정 대신 추가 심리상담 등을 지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경관들이 공공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조지아대학교

가 위치한 에덴스시에서는 아파트 밖에서 흉기를 든 한인 남성이 경찰 총격에 숨졌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 한 리커스토어 앞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앓은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조(25)씨가 쇠지렛대를 들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관 총에 맞아 숨졌고, 당시 남가주 한인사회는 경찰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김형재 기자

“즉각적인 위기 때만 총기 사용”

가주경찰 발포규정 대폭 강화 경관의 자율적인 '판단' 배제

지난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사는 경찰 총기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AB 392)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경관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imminent threat of death) ▶경관 또는 행인의 심각한 부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는 경관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이 설 때

총기발포를 할 수 있었다.

새 법안은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자율권 대신 '총기사용'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셈이다.

현재 LAPD도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관의 살상무기 사용은 위에 언급한 규정에 근거하고, 사건현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s)'이 들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경관 총격에 의한 한인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 배달원에게 3불 팁 주면 다음 주문 때 3불 할인 쿠폰 제공



소비자들의 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가 팁 제공을 촉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도미노 피자는 온라인 주문 시 배달원에게 3달러 이상의 팁을 주면 다음 주문 시 3달러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9월 8일에 종료되며 우버이츠 등 제삼자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프로모션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소비자가 먼저 팁을 부담한 후 다음 주문 시 쿠폰으로 업체가 팁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배달원에게 팁을 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배달 기사들의 이직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추가 주문으로 수익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https://www.dominos.com/you-tip-we-ti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재선 기자

“정말 알람 안 울렀다니까” 아이폰 이용자 항변 사실로

일부 아이폰에서 알람 설정 시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일부 아이폰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류의 원인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류 발생 기종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오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아이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았는데 울리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5개 정도의 알람을 설정해 놓았는데 모두 울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애플의 공식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아이폰 사용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을 소개했다.

우선 알람 설정과 불륨을 다시 확인해 사용자의 실수 가능성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애플의 '주시 지각 기능'(attention aware features) 상의 문제점 때문일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주시 지각 기능'은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장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자동으로 조차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기기를 보고 있으면 알람 음량이 낮아질 수 있다.

현예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레이건 공항 장거리 노선 결국 증편

연방의회가 레이건 공항(사진)에 최대 14편의 장거리 노선을 증편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출신 연방상원의원 4명과 다수의 연방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연방항공국(FAA) 등 1050억달러에 이르는 항공관련 예산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레이건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증편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 VA)와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VA)은 “레이건 공항의 연간 이용객 한도가 1500만 명으로 설계됐으나 지금 이미 2500만 명이 이용해 66%를 초과한 상태”라면서 “공항 혼잡으로 인해 지연출도착비율이 전국 공항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벤 카인 상원의원(민주, MD)와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민주, MD)은 “레이건 공항을 증편할 경우 버지니아 델레스 공항과 메릴랜드 BWI공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레이건공항의 증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에 레이건 공항이 위치한 제리 코넬리 하원의원(민주, VA)도 맹렬하게 비판했으나 스스로 정치력 부재만을 증명할 뿐이었다. 연방상원 상무-과학-교통상임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 WA)과 공화당 간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민주, TX)는 물론 연방하원 교통-인프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이 모두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항공여행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레이건 공항의 운항거리 제한 탓에 워싱턴 지역 국내선 항공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건 공항은 연방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입법이 있어야 증편 등이 가능하다. 레이건 공항의 경우 운항거리 1250마일 이상의 장거리노선일 경우 극히 제한적인 운항편수만 허용하고 있다. 최고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운항거리 제한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방의원들은 여객기를 이용해 워싱턴DC와 지역구를 오가지만 제한된 항공편 때문에 애를 먹자, 레이건 공항 증편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출신 의원들은 증편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연방정 치권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옥채 기자



틱톡 챌린지 ‘서브웨이 서핑’ 다시 유행 조짐

워싱턴메트로(WMATA)가 한 승객이 달리는 전철 마지막 객차에 매달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9일(월) 오전 11시15분경 맥켄슨 역에서 메트로 객차 출입문이 닫히자 맨 마지막 객차 뒷꿈무늬에 매달려갔다. 이 메트로 객차는 실버라인의 애쉬번 방향으로 진행했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적발시 1급 경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메트로당국은 요즘에도 메트로 전철 지붕 위에서 걷거나 뛰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워싱턴 메트로에서 두 명의 남성이 메트로 전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유행하는 ‘서브웨이 서핑’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브웨이 서핑을 하는 동영상을 올릴 경우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워싱턴 뿐만 아니라 뉴욕과 시카고, 보스턴, LA 등 대도시 곳곳에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시 브룩클린에서도 지난주 15세 청소년이 서브웨이 서핑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틱톡은 모든 형태의 서브웨이 서핑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이 서브웨이 서핑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DC 과속 카메라, 단속이 아니라 장사!

한 카메라에서 석달동안 티켓 3만4천장 발부



워싱턴DC의 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석달 동안 모두 3만3682장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돈벌이 수단이 분명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DC의회에 제출된 교통국 단속 카메라 데이터에 의하면, 25번가 포도맥 프리웨이 북쪽 방향에 설치된 이 카메라에 작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 같은 단속 건수를 기록했다.

이 카메라는 작년 1월26일 설치돼 3월27일까지 제도 기간을 통해 경고장만을 발부한 후 3월28일부터 실제 티

켓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295번 도로 1번 출구 근처 카메라는 석달 동안 2만641장, 뉴욕 애비뉴와 캐피탈 스트리트 노스이스트 교차로 구간 카메라는 1만9041장 등 1만장 이상 적발한 카메라가 7대, 5천장 이상 적발한 카메라가 15대에 이른다.

당국에서는 각종 데이터에 근거해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초기에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나중에 갈수록 줄어들면 설치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후 보통 1년6개월이 경과하면 단속 건수가 96% 정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DC 교통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일차적인 목적이 안전에 있으며 과속 운전자의 습관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워싱턴DC의 주요 예산 재원 중의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워싱턴DC에는 지난 2월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만 모두 161대가 가동되고 있으나 지난 3월2일을 기해 모두 34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 및 신호 위반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김옥채 기자

셀폰 떨어뜨렸는데 911 자동으로 전화걸려

SOS 기능으로 911 전화 호출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911 긴급전화에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SOS 서비스 때문에 지역 구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모두 장착된 SOS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긴급 SOS 기능은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5번 이상 누르면 작동되는데, 주머니에서 실수로

누르더라도 자동으로 911로 전화가 간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911센터는 만약 긴급 SOS가 실수로 작동했다면, 전화를 끊지 말고 잘못 걸린 전화라고 반드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실수를 막으려면 SOS 기능을 끄는 것이 좋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바다에 실수로 떨어뜨리더라도 이용자의 위험으로 감지돼 911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를 해야 한다.

워싱턴시리우스 XM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운행 중 바퀴가 팻터를 지나갈 때 충격음 정도에도 사고로 인식해 911 전화가 걸려진다. 이런 경우 911전화 응답원과 통화가 이뤄지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줘야 문제가 종료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911센터는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전화가 더 자주 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화조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바이든, 고어에 훈장 “대선결과 수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엘 고어(사진) 전 부통령을 최고 영예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수훈자로 선정하면서 그의 선거 결과 승복 사실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고어 전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으로 쌓은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다. 대상자에 고어, 펠로시, 블룸버그, 케리 등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가운데, 특히 고어에 대한 훈장 수여 사유를 밝힌 백악관의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백악관은 고어에 대해 “전체 득표



에서 이긴 뒤 그는 우리의 단결을 위해 논쟁적인 대선 결과를 수용했다”고 썼다.

이는 고어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00년 대선에 대한 언급이었다. 당시 고어는 전체 득표율 48.4% 대 47.9%로 앞서고도 확보한 선거인단 수(266명 대 271명)에서 밀리며 고배를 마셨는데, 박빙 차이로 부시가 이긴 플로리다주(선거인단 25명)에서 재검표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올해 대선에서도 패배할 경우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견제’로 읽혔다.

대학 반전시위에 졸업식 ‘비상’

대학들, 보안 검색 강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졸업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대학이 행사장 내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졸업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

3일 AP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내 여러 대학교들이 약 일주일간 예정된 졸업식을 최근 시작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반전시위가 계속되자 행사 졸업식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안 인력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해 시위와 관련된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행사 참석자를 학생과 가족 등 소수로 제한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졸업식을 치르는 인디애나대학교는 최근 졸업생과 그 가족에게 별도 메시지를 보내 학교 측이 졸업식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또 졸업식 행사장 밖에 별도로 시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이 대학은 모든 방문객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보안 요원들이 방문객이 소지한 모든 가방을 검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 금지 품목에는 무기를 비롯해 시위에 이용되는 배너, 플래카드, 깃발 등이 포함됐다.

인디애나주 경찰은 대학 측이 요청할 경우 곧바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



지난 2일 유타대 졸업식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AP=연합뉴스]

도록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대 캠퍼스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으로, 지난 주 경찰이 시위대의 농성 텐트를 철거하고 30여명을 체포한 바 있다.

오는 5일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졸업식을 열 예정인 오하이오주립대 역시 보안 요원을 늘리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검색과 가방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 파크에서 약 5만 명이 참석하는 졸업식을 여는 노스이스턴대도 비슷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일주일간 졸업식을 여는 미시간대 역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행사장에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배너와 깃발 등 반입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졸업식장 외부에 시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지정하

겠다고 “졸업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장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비책에도 각 대학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유타대의 경우 전날 열린 졸업식에서 총장이 연설하는 도중 일부 학생들이 야유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했다. 총장은 연설을 멈추고 시위자들에게 현장을 떠나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학의 졸업식장 밖에서는 50여 명이 집회를 벌였고,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는 당초 오는 8~11일 열 예정이었던 졸업식의 메인 행사를 아예 취소한다고 지난달 미리 공지한 바 있다.

애플, 역대 최대 1천100억달러 자사주 매입

“AI 관련 큰 발표 계획”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1분기 매출 감소에도 향후 성장을 전망하며 지속적인 둔화 우려를 잠재웠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기로 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인공지능(AI) 탑재를 예고하면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다.

애플은 지난 1분기(회계연도 2분기) 907억5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1.5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900억1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순이익도 전망치 1.50달러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4% 감소했고, 순이익도 236억4천만 달러로 2% 줄어든 바 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459억6천만 달러)이 시장 전망치(460억 달러)와는 비슷했지만, 1년 전(513억3천만 달러)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부활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줄어든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예상보다 강한 중국 수요로 우려보다 매출 감소폭이 적어 매출 둔화세가 완화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했다고 진단



했다. 애플은 지난 분기 중국에서 16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는 줄어 들었지만 시장 예상치(159억 달러)는 크게 상회했다는 것이다.

PC와 노트북의 맥(Mac) 매출이 4% 늘어난 74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68억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매출도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시장 예상치 232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아이패드는 55억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59억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애플은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현재 분기에 낮은 한 자릿수 매출 증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매출 증가 전망은 애플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려온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으로 다가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주당 0.25달러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1천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형사재판서 변호사와 ‘입막음 돈’ 논의 통화녹음 공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륜 의혹 폭로 시도와 관련해 개인 변호사 코언과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한 정황이 들어있는 녹음과일을 배심원단에 들려줬다.

해당 대화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별개 사건인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의 폭로 시도와 관련해 이뤄졌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입막음 돈을 지



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와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맥두걸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

통령과 한때 불륜관계였다는 의혹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통화 녹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두걸의 폭로 시도와 관련해 코언과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했고, 특히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물었다고 NYT는 전했다.

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통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녹음 파일의 존재와 내용은 지난 2018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이 대니얼스에 대한 돈 지급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맥두걸 사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은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 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제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부각, 이번 사건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중범죄임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2024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지부 결식아동 돕기
자선골프대회
GCF MISSION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생긴 세계 각처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의 급식, 교육 및 선도를 통해 희망을 심어준다.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2024년 5월 28일 (화)

• 오전 11시 30분 샷건 • 대회 당일 접수: 오전 9시 30분부터

Dominion Valley CC

15200 Arnold Palmer Drive, Haymarket, VA 20169 (T. 571-222-6900)



- 참가비** \$150 (그린피, 점심, 저녁, 음료 포함)
- 조편성** 남성조 및 여성조
- 경기방식** 메달리스트, 조별 우승자는 Gross Score, 2·3등은 Net Score 방식
- 시상** 조별 입상자, 근점상, 장타상, 장려상, 기타 경품 및 기념품 다수
- Raffle Ticket** 한국왕복항공권 및 많은 상품 준비
- 시상식 및 저녁식사** 이벤트 후
- 행사 문의** 최명란 이사 (202-460-8394), 김남숙 회장 (703-999-9489)
손숙희 부회장 (516-242-8466), 남정옥 늘푸른골프회장 (703-508-4435)
- 대회장** 허진 (EXEEDA 대표)
- 주최** GCF 버지니아 지부 회장 김남숙
- 대회 진행** 이철희 프로, Henry Yum 프로 (L&C Universal Golf)
- 언론사 후원** ㉠ 워싱턴 중앙일보
- 특별후원** 주간연예

- Platinum Sponsor (\$2,000)** 손종락, 최명란, 허진
- Gold Sponsor (\$1,000)** 박완다, 김남숙, 미련곰탱이, GW International, Tiger Market 김성한, Fiesta Market 이종국, K Market 김덕형, Maryland Label & Design 천재일, 전 수도권 VA 한인회장 최일규, 한인커뮤니티센터 이사장 김태환, Meridian Material Inc. George Hong
- Silver Sponsor (\$500)** 김지혜, 손숙희, 홍은영, 이순성, 허정숙, 이희은, 오만, 늘푸른골프, 청담 한의원, 베스트치과, 워싱턴 홈케어, MY Roofers Inc., GCF 손목자 이사 & 손영환 고문, Love Hand Home Health
- Bronze Sponsor (\$300)**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이사장 이내원, AKUS 워싱턴 회장 오인환, 평통 고문 최응길, 한미여성재단 회장 강명희, 최제인, 윤애경, 정희중, 오현주, 뉴스타 부동산 Mr. OH, 최명현, 장원반점, 김응권 척추신경, 센터빌 이가네 설탕탕, 본가, Keymax Construction Co., John Shin Title Lawyer

후원

아이린신 주하원의원, GCF 이경애 이사, 강영우 장학재단 석은옥 이사장, 최민환 전 워싱턴 디시 체육회장,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 신동영, 전 식품협회 회장 김귀옥, 박순용 전 페넬로라 한인회장, 남정옥 늘푸른골프 회장, 정영미 한미장애인협회 이사장,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장 김영란, 재향군인회 부회장 김용운, 전 1310 라디오방송 대표 신현애, 원웅식 원산농장, THAVMA 최윤정, 이명옥, 박순옥, 이지나, 김계옥, 허범희, 서인순, 최찬기, 김선화, 이명자, 이순자, 이영자, 이귀옥, 심모니카, 문혜자, 최지현, 고훈작, 김혜량, 최조안나, 김현신, 박도옥, 이창자, 김제니, 김현욱, 장국정, 릴리김, 황인선, 조영복, 진숙 Poulson, 김선희, 김미자, 유영숙, 강영신, 류경근, 김영림, 정규풍, 고숙희, 나명신, 양의자, 강명학, 김계성

물품 후원

- * L&C Universal Golf (이철희, 염희섭 프로): \$2,000 레슨 쿠폰
- * 박우수: 아토미 \$1,500 물품 후원
- * 김순정: 아토미 상품권 \$820 상당
- * 주간연예: 전면 광고 \$600 후원
- * 홈마음살: 상품권 \$500
- * 센터빌 고기빌: 상품권 \$500
- * 센터빌 넘버 1 골프 라운지: Gift Card 무료 1시간 x 10장
- * 킹스파: 무료이용권 10장
- * 김응권 척추신경: X-Ray 2회 치료 상품권 2장
- * Haha Pink: 골프 모자 10개 (\$300 상당)
- * 소: 상품권 \$50 x 4개
- * MY Roofers Inc: 골프 타월 100장
- * Stellar Song: 상품권 \$100
- * 메리필드 골프샵: 골프웨어 상품
- * PXG: 골프용품 협찬
- * 롯데 부띠끄: 이불 도네이션
- * 설악가든: Gift Card \$50 x 2개
- * 한강: Gift Card \$50 x 2개
- * 이복순 세라캠: 상품권 \$100
- * 김경순 세라캠: 상품권 \$100
- * 이우영: 도서 10권 (\$300)
- * 반디코리아: 보조가방 100개
- * 브레이크스 식당 (Breakers BBQ): Gift Card \$30 x 10장



글로벌 어린이재단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199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난 24년간 오백만불 이상을 모금하여 한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교육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CF에 내시는 기부금은 100%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 포섭된 KGB 첩자, 1983년 미·소 핵전쟁 막았다

1985년 5월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영국 책임자 올레그 고르디옌스키는 갑작스런 KGB 본부의 부름을 받고 귀국했다. 영국 책임자로 승진한 지 3개월쯤 지난 뒤의 일이었다. 모스크바의 자택에 머무르던 그는 어느 날 외출 후 집에 들어오다 섬뜩함을 느꼈다. 평소 자택 아파트의 3개 열쇠 중 2개만 잠겨두는데 이날은 3개 모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고르디옌스키는 즉시 영국 비밀정보국(MI6)에 알렸다. 그는 1975년부터 MI6를 위해 일하던 이종스파이였다. 연락을 받은 MI6는 비상시 고르디옌스키를 탈출시키기 위한 필리코(Pimlico) 작전을 즉각 가동했다. 고르디옌스키에게 KGB의 감시를 따돌리고 열차와 버스를 이용해 핀란드 국경 근처까지 오게 했다.



1987년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만난 MI6·KGB 이중스파이 올레그 고르디옌스키(오른쪽). [중앙포토]

1975년 7월 20일 그가 약속장소에도 착하자 MI6 요원들은 대기시켜 놓은 탈출 차량의 태워 버려 출발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의 생사를 MI6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동차 오디오에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핀란드어가 흘러나왔다. 소련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 핀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MI6의 신호였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어 핀란드어 찬가가 흘러나왔다. “밤의 공포와 위협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승리했으니 이제 너의 날이 왔다.” 트렁크에서 밤을 꼬박 지낸 뒤의 이튿날 아침을 맞은 그의 눈에서 잠았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소련으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배반자의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중스파이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1975년 7월 20일 그가 약속장소에도 착하자 MI6 요원들은 대기시켜 놓은 탈출 차량의 태워 버려 출발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의 생사를 MI6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동차 오디오에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핀란드어가 흘러나왔다. 소련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 핀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MI6의 신호였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어 핀란드어 찬가가 흘러나왔다. “밤의 공포와 위협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승리했으니 이제 너의 날이 왔다.” 트렁크에서 밤을 꼬박 지낸 뒤의 이튿날 아침을 맞은 그의 눈에서 잠았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소련으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배반자의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중스파이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1975년 7월 20일 그가 약속장소에도 착하자 MI6 요원들은 대기시켜 놓은 탈출 차량의 태워 버려 출발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의 생사를 MI6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동차 오디오에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핀란드어가 흘러나왔다. 소련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 핀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MI6의 신호였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어 핀란드어 찬가가 흘러나왔다. “밤의 공포와 위협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승리했으니 이제 너의 날이 왔다.” 트렁크에서 밤을 꼬박 지낸 뒤의 이튿날 아침을 맞은 그의 눈에서 잠았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소련으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배반자의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중스파이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1975년 7월 20일 그가 약속장소에도 착하자 MI6 요원들은 대기시켜 놓은 탈출 차량의 태워 버려 출발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의 생사를 MI6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동차 오디오에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핀란드어가 흘러나왔다. 소련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 핀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MI6의 신호였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어 핀란드어 찬가가 흘러나왔다. “밤의 공포와 위협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승리했으니 이제 너의 날이 왔다.” 트렁크에서 밤을 꼬박 지낸 뒤의 이튿날 아침을 맞은 그의 눈에서 잠았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소련으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배반자의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중스파이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1975년 7월 20일 그가 약속장소에도 착하자 MI6 요원들은 대기시켜 놓은 탈출 차량의 태워 버려 출발했다. 트렁크에 몸을 숨긴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의 생사를 MI6에 맡긴 채 눈을 감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동차 오디오에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핀란드어가 흘러나왔다. 소련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 핀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MI6의 신호였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어 핀란드어 찬가가 흘러나왔다. “밤의 공포와 위협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승리했으니 이제 너의 날이 왔다.” 트렁크에서 밤을 꼬박 지낸 뒤의 이튿날 아침을 맞은 그의 눈에서 잠았던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소련으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배반자의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이중스파이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다.

신념을 믿고 기다리는 절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MI6는 그에게 소련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종종 주었다. 고르디옌스키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신뢰 관계가 무르익자 고르디옌스키도 소련 내부정보를 가감없이 MI6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서방사회에 대한 KGB의 간첩망 구축 계획을 많이 알려주었다. 영국 노동당 대표를 역임한 마이클 풋 의원 등을 포섭해 영국 정치권에 소련 간첩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알려 준 것이 그 예다. 영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KGB의 작전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 냉전이 정점으로 치달던 1980년대 초반기에는 소련 지도부의 생각과 의중을 많이 알려 주었다.

1983년 11월 나토(NATO)가 대규모 모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자,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를 출격 대기시키고, 북해 함대의 잠수함 출항 대기 지시를 내렸다. 언제라도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MI6에 상세히 알려 주었다. 특히 소련 지도부가 실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 서방이 모르고 있는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1983년 11월 나토(NATO)가 대규모 모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자,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를 출격 대기시키고, 북해 함대의 잠수함 출항 대기 지시를 내렸다. 언제라도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MI6에 상세히 알려 주었다. 특히 소련 지도부가 실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 서방이 모르고 있는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1983년 11월 나토(NATO)가 대규모 모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자,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를 출격 대기시키고, 북해 함대의 잠수함 출항 대기 지시를 내렸다. 언제라도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MI6에 상세히 알려 주었다. 특히 소련 지도부가 실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 서방이 모르고 있는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1983년 11월 나토(NATO)가 대규모 모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자,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를 출격 대기시키고, 북해 함대의 잠수함 출항 대기 지시를 내렸다. 언제라도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MI6에 상세히 알려 주었다. 특히 소련 지도부가 실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 서방이 모르고 있는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1983년 11월 나토(NATO)가 대규모 모의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자,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를 출격 대기시키고, 북해 함대의 잠수함 출항 대기 지시를 내렸다. 언제라도 우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고르디옌스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MI6에 상세히 알려 주었다. 특히 소련 지도부가 실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 서방이 모르고 있는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coway

해피 마더스 데이 5월 프로모션

행복한 가정의 달! 코웨이와 함께 하세요

2024년 4월 27일 ~ 5월 28일

프로모션 1

해당제품 2대 구매시

\$300 상당 쿠펰 연아 밥솥 증정 (6인용)

* 주문조건 : 렌탈 혹은 재렌탈 1대 + 렌탈, 재렌탈 혹은 일시불 1대
 * 해당제품 : P-6320L, CP-633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CHP1-280L, CHP1-620L PLUS,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BB-14, Massage Chair
 * 고객번호당 1회 제한

프로모션 2

노블 공기청정기 구매시,

\$200 상당 비자카드 증정

* 해당제품 렌탈, 재렌탈, 일시불 구매시 : AP-2021A

프로모션 3

안마의자 스페셜 할인

등록비 \$900 할인

* 해당제품 렌탈시 (등록비 \$900 구간 only)

베세토 지하 1층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롯데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 MART
13818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제품 구입 및 문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 책임

“우린 독약 아닌 쓴 약... 일단 ‘빡공’해 20대가 표 쥘야 할 이유 찾겠다”

(빡세계 공부)

보수 정당은 총선 기준으로 12년간 정치적 황무지(political wilderness)에 머문다. 지금대로면 더 오래일 수 있다. 보수를 지지하는 세대가 퇴장하고 반목하는 세대는 다수가 된다. 여당으로 정책(미래)을 말할 수 있는 이번에도 심판(과거)에 집중할 정도로 당력도 한계다.

지난 2일 첫 공개 세미나로 활동 개시
이런 속에서도 신발 끈을 조여 매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첫목회’로 대부분 수도권 등 협지에서 출마한 3040들이다. “전사(戰死)는 했지만 정치적 에너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박상수 인천 서갑 후보)란 이들이 2일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앞선 지난달 27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과 이재영(서울 강동을, 간사)·이종철(서울 성북갑)·한정민(화성을) 조직위원장들 만나 생각을 들었다. 중도와 젊은 층을 향한 새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들은 “당의 주력인 영남 원내 계신 분들이 쓴 약과 독약은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린 절대 독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려운 선거였다.
김재섭=“후보들이 다 무기력감 같은 걸 느꼈을 것이다. 바람이 너무 썰다. ‘당신은 좋은데 당신 당은 못 짚겠다’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개인적으로 제일 힘 빠지는 얘기였다. 내 노력과 무관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다.”

이종철=“3월 초중반이 되면서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후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천변에 갔는데 저를 찍었다는 분이 많아 일요일엔 세 봤다. 10명 중 7명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무서운 민심을 확인했다.”

수도권에선 양자 구도다. 화성을에선 여당 후보가 3등이었다. 당사자인 한 위원장은 “나중엔 누가 더 싫은가 대결하는 선거였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지역에 있었다”며 “나를 찍어달라고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인구구조적으로 다음 선거는 더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이재영=“지금 상황으로 보면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 비관적이고 대선도 연장선에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당의 저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뛰었던 사람들은 회의적이다. 선거 결과를 거의 부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 비치면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대통령 변화 시그널, 체감엔 아쉬움
반공·경제 보수, 20대에겐 안와 닿아

이재영 강동을 위원장
대통령 잘하면 당 잘 된다? 리스크 커
당내 손소리 ‘내부 총질’로 여겨서야

이종철 성북갑 위원장
당, 공정·상식·소통 차별화 보여주고
대통령에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정민 경기 화성을 위원장
보수엔 2030 활동공간 거의 없어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만들 필요

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다.”

-어떤 모습이 그랬나.
이재영=“단편적이긴 하나, 1차 당선자 모임이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 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축하할 일인가.”

-2월 말 3월 초 대통령실발 논란이 결정적이었던 말 나온다.

김재섭=“그간 누적됐던 것의 기록이었다. 대표적으로 대과 논란 같은 건데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건 875원이 아니었다. 충분히 맥락이 있는데 왜곡된 것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화를 낸 건 그간 누적된 불만이 있었다는 거다. 2년간 국민 불만이 적재적소에 해결되지 않아 총선을 기점으로 다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재영=“정권심판론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프레임에 빠져서 선거를 치렀다. 결국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갔는데 전쟁터로 치면 그쪽 전쟁터에서 치른 거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 사람도 없었고 콘텐츠도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자면 많지만 지금 얘기할 건 당이다. 당이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어전히 2, 3년을 좌우할 건 대통령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는 등 이전과 달라

진 모습을 보이는데.
김재섭=“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시그널이긴 하다. 그런 변화가 체감되어야 하는 부분에선 아쉬움이 많다.”

이재영=“질문 자체가 다시 대통령에게 뭘 맡기자는 건데 우리 당이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엔 대통령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몇 가지 체크된 게 있다. 65 플러스(65세 이상)를 빼곤 다 떠났다.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치를 전술과 전략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토론하기 위해 첫목회가 결성된 것이다.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결성된 게 아니다. 우리 걸 가지고 유권자에게 다가가지 않고 대통령이 잘하면 당이 잘 되겠다, 그걸 기대하면서 정치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종철=“민주화가 심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야당보다 여당이나 권력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매우 엄격한 기대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 이렇게까지 생각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 능력이고 세 번째가 무능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유권자들이) 흡족하지 않지만 넘어가려던 게 윤 대통령의 TV 대담 등 대응 모습을 보면 이전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쏘렷던 것 같다. 당이 따로 가더라도 대통령과 관련되어서든, 당의 직접적인 것이든 공정과 상식, 공감-무능에서 차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당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국민의힘 계열엔 이전에도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대표되는 개혁성향의 소장파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7년여 미약했지만 말이다.
-이번 총선 중 다수가 대통령을 두둔하는 연평장을 낸 게 논란이었다.

한정민=“우리 슬로건이 일단빡공, 일단빡세계 공부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될 거라고 보나.
이재영=“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안 된다. 22대 국회 구조상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1대보다 훨씬 더 힘든 여소아대가 될 텐데, 현역 분들은 정치 상황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첫목회는 자주 모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 당에 전달하고 보수 진영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도 오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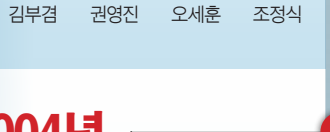
고정에 기사

보수 정당 내 소장파 모임

2000년

16대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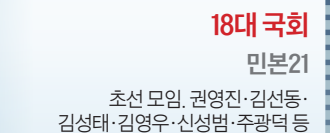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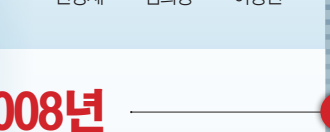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
3040 당선인들 주축,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김부겸·권영진·오세훈·임태희·조정식 등



2004년

17대 국회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
남·원·정, 권영세·박형준·김희준·이성권 등



2008년

18대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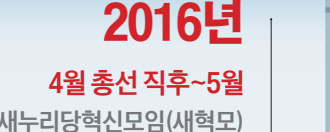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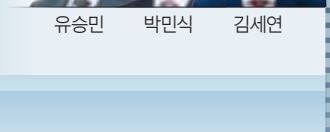
민본21
최선모임, 권영진·김선동·
김성태·김영우·신성범·주광덕 등



2012년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세신파 모임,
남경필·정병국·유승민·박민식·김세연 등



2016년

4월 총선 직후~5월
새누리당혁신모임(새혁신모)
김세연 등 8인

2024년

22대 국회

첫목회

김재섭·이재영 등 20명으로 발족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회원들. 왼쪽부터 이종철·한정민·이재영 조직위원장과 김재섭 당선인. 최기용 기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이 해맑은 웃음 사라져간다...경수초교 마지막 어린이날

학생수 줄어 25년 만에 문 닫아 "선생님은 왜 같이 안 가시나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새로운 학교로 저희랑 같이 안 가세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아이들의 깔깔 웃음이 넘쳐나도 모자란 날.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웃음 너머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은 텐데, 어찌죠?" 어린 학생이 퐁퐁 퐁퐁한 눈망울을 한 채 묻자 담임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답했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즐거운 추억도 늘 같이 쌓아갈 거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경수초등학교, 87명의 재학생은 올해 이 학교에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이한다. 내년 3월부터는 같은 성포동에 있는 경일초등학교와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2000년 개교한 지 25년 만에 학교 문을 닫는 셈이다. 초등학교 이름도 '경수' 대신 '경일'로 통일되고 지금의 학교 공간도 추후 다르게 바뀔 예정이다.

내년이 되면 정든 아이들과 헤어질 지 모르는 담임 선생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어쩌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경수초등학교'도, '담임 선생님'도 아예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마음을 담은 '마지막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와, 나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씩씩 씩씩. 지난 2일 캐리커처 작가 네 명이 경수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학교 통폐합 예산을 활용한 첫 행사였다. 멋진 그림이 완성되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나도 아저씨들처럼 훌륭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라고 외치자 곁에 있던 친구가 "나는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화가가 될 거야"라고 맞장구쳤다. 꿈에 더해 학교에 대한 추억을 심어주는 행사였다.

이렇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어울림을 배우는 터전인 초등학교가 위기에 봉착했다. 2000년 경수초등학교 개교 당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학령인구 또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교생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는 2028년이 되면 200만 명을 밑돌아 187만58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574만9301명의 3분의 1도 안 되고 올해 248만1248명보다도 25%나 줄어든 수치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도 올해 513만여 명에서 2026년에는 483만여 명으로 줄면서 5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졌고, 그 와중에 매년 10명 안팎이 입학하던 경수초등학교도 통폐합 대상

에 포함되게 됐다. 같은 학교로 거듭나게 되는 경일초등학교와는 걸어서 고작 7분 거리.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두 학교는 '어울림 행사'를 준비했다. 일종의 '통폐합 연착륙' 기획이었다. '어울림 행사'는 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몸을 부대끼며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엔 두 학교 2학년과 3학년생이 학교 근처 노적봉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생태 체험도 했다. 2학년 남자 어린이는 "학원에 함께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해서 크게 낯설지 않아 다 행이었다. 같이 게임을 하고 나니 경일초등학교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며 웃었다. 반면 5학년 여자 어린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자니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그냥 쪽 여기서 공부하다 졸업하고 싶다"며 우려를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학부모들도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1학년생 학부모인 이모(42)씨는 "아이



3일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그린 캐리커처를 들고 있다. 전교생이 87명인 이 학교는 내년에 인근 경일초등학교와 통합한다. 최기용 기자

가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 적응하고 있는 참인데 내년엔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라며 "저도 새 학교에서 새 부모들과 인간관계를 쌓고 적응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3학년 최윤선 선생님은 "오는 7월에는 체육대회도 열고 함께 밥을 흘리며 더 친해지는 자리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3일 오전 9시, 최인옥 교장은 '마지막 어린이날' 조희 방송을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다. 이 옥경 교감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학생 수가 줄수록 수월한 측면도 있겠지만 학교의 존속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인 만큼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뿐 아니라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에 방과 후 학교 감사 문제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

해진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학교 통폐합의 파도는 인구가 적은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몰아닥쳤다. 지난 3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 등 최근 3년간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13곳이 통폐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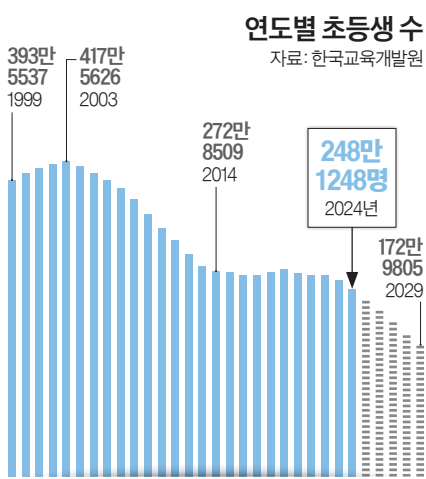
최훈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물리적 공간으로서 고향이란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며 "그나마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되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고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경수초등학교 출신인 이서우(28)씨도 "추억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학교 앞을 지나며 괜히 코를 훌쩍이게 때가 생각나고 그랬는데 뭐가 행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학교 근처에서 14년간 꽃집을 운영해온 김모(57)씨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 이리다 학교가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닥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잊혀진 고향처럼, 경수초등학교라는 이름은 이제 졸업 앨범과 졸업장에 박제된 채 남게 됐다.

하지만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또 다른 '경수초등학교'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아쉬움이 그리움으로 남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고, 올해 졸업생 한 명이 통폐합 소식에 말을 남겼다. "앞으로도 선생님 엄청 뵈고 싶은 텐데, 어찌죠?"

안산=원동욱 기자, 김홍준 기자



“25년째 어린이날 선물했는데...이젠 선물 남을까봐 걱정”

지난 2일 오전 10시 전북 정읍시 상동 엘디마트. 마트 내 매장 곳곳에 장난감과 학용품·과일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안정남(79) 엘디마트 대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주문한 선물이었다. 안 대표는 올해로 25년째 어린이날과 성탄절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도 가난해서 '커서 돈을 벌면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 꾸러미 2000개를 준비했다고 한다. 장난감과 학용품·먹거리 등을 저학년·고학년·남학생·여학생에게 고루 나눠

주기 위해 선물도 네 종류로 마련했다. 선물 외에도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상품권과 장학금을 건네고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했다. 그는 "20여 년 전 선물을 받아 간 아이들이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안 대표는 1972년 농기계 대리점을 연 뒤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1999년 장흥에 엘디마트를 개업하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선물을 줬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한 게 항상 한이 됐다"며 "주변의 가난



안정남 엘디마트 정읍점 대표(오른쪽)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고 있다. [사진 안정남]

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처음으로 기부한 것은 급

식비 지원이었다. 10여 년간 장흥 지역 학교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아 식비를 지원했다. 이후 2001년부터는 어린이날과 성탄절 때 어린이 3000~400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나눠주고 있다. 아이들 돕기로 시작한 안 대표 선행은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확대됐다. 이후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과일과 라면·쌀 등을 전달하며 25년 이상 나눔을 실천해 왔다. 그동안 기부한 돈만 40억원에 달하는 그는 대한민국 발전대상과 대한민국 글로벌과워브랜드 대상 등을 받기도 했다. 안 대표는 10년 전 정읍시로 이사한

뒤로도 고향인 장흥 경로당을 수시로 찾는다. 지난해에는 노인 시설 67곳을 돌며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독거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지원금을 받고 흐뭇해할 때면 세상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나눔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싶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날 선물 4500개를 준비하고도 부족했지만 최근엔 2000개도 남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그는 남은 선물을 자애원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

정읍=최경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박찬대보다 더 튼 이재명 ... 12분간 단일대오 강조 연설

이대표 “당론 입법 반대 옳지 않아”
일부 의원 “굳기 잡는 느낌이었다”

박 “대통령 거부한 법안 즉시 재추진”
국회 원구성부터 갈등 빚을 가능성
국민의힘 “국회 일방독주 선언” 반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왼쪽)이 새 원내대표로 확정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왼쪽부터)가 양팔을 들어올린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짚뿔' 박찬대 의원을 선출한 건 예상된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명심(明心)'이 작동한 사실상 추대였다. 이날 예상 못 한 건 이 대표의 12분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긴, 그러면서도 '정치결사체 구성원'임을 강조한 연설이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연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이재명 일극(一極)체제'가 어느 정도 심화될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투표에 앞서 단상에 올라 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개개인이나 나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구성원”이라며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어 낸 개인의 획득물이 아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잊지 말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당론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정말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당의 발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말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 양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도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 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선 몇몇 중진의 의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웅성거렸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다선들도 ‘기억

나는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좀 의아했다”며 “마치 이 대표가 굳기를 잡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끌고 나겠다는 ‘돌격 앞으로’ 선언 같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같은 건 없어야 한다는 경고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을 재직 의원 과반 득표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도록 신발 끈을 꼭 매고 있는 힘껏 뛰겠다”며 큰절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친명계로,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란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失機)하는 과거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즉시 재추진 ▶민생 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협상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민주당 몫 확보 ▶감찰·연론개혁 가속화 등을 공약했다.

당선 후에도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곤 재차 “(22대 국회) 첫 번째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운영위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거명한 하나하나가 정부여당이 강하게 거부감을 가진 사

안들이다. 원 구성부터 갈등을 빚을 개연성이 높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 여당으로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당의 원리”라고 주장해 원 구성이 47일간 지연됐다.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했고, 후반기 국회 들어서야 국민의힘에게 내주었다.

당장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3선 한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 ‘짚뿔’ 인사다. 이 대표를 만나면서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 2021년 대선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회계사 경험을 살려 대장동 의혹 방어전에 앞장섰다. 이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도 박 원내대표라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명심(明心)’은 박찬대’임을 입증했다. 김민석·김성환·박주민·서영교 등 출마 희망자가 하나둘씩 출마 의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2005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처음이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황우여 “재창당 수준 혁신... 전대 룰 개정, 모든 의견 열려있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회견

“당원에 집단지도체제 의견 묻겠다”
원내대표, 송석준 이어 이종배 출마

4·10 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뒤통수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황 위원장은 6월 말 또는 7월 초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국민의힘을 이끈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관리형 비대위’여서 전당대회 준비만 한다면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며 “관리와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어지는 당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과제는 전대 룰 개정 여부다.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심이 곧 민심”이란 명목으로 당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바꿨다(‘당원 100%’). 진운계가 주도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등 비

윤계 인사를 지도부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2006년부터 적용했던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비윤계 당권 주자들 “민심을 섞어야 한다”(나경원)라거나 “민심 반영 비

당선인과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9일 뽑히는 새 원내대표와 논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한다. 7~9명의 비대위원 중 임명직 4명에는 여성과 청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당협위원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정치 신인이 다수였던 한동훈 비대위와는 달리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전면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황 위원장은 “일머리, 일솜씨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할 일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9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송석준(경기 이천, 3선) 의원에 이어 이종배(충북 충주, 4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3일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할 수 없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날 도전장을 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4선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추경호·송언석, 부산·경남에선 4선 박대출·윤영석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효성·김기정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	--	---	---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888-756-7549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WIDE SHOT



상불하는 꽃 지화 연꽃, 모란, 불두화, 달리아, 대국...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종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지에 천연염료로 색을 내 만든 '지화(紙花)'입니다. 사시사철 생화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에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우리의 전통문화지만, 꽃을 꺾는 것도 살생으로 여기는 불교에서만 다양한 의례에 여전히 지화를 사용합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만 피워낼 수 있는 지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수백 번 손질이 달아야 한다는 석용스님은 "이게 곧 상불"이라며 굳은살과 흉터투성이인 손으로 함장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보유자인 스님은 전통 지화 56종 중 12종을 전수하고 감로쟁화 등을 바탕으로 15종을 복원했습니다. 사진:글 최영재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덴마크판 '선들러 리스트' 글·그림 이원복

A grid of 24 comic panel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Righteous Among the Nations' in Denmark. The panels cover topics such as the rescue of Jews during the Holocaust, the role of Oskar Schindler, and the impact of the 'Righteous Among the Nations' list. Each panel includes text, illustrations, and small portraits of key figures.

Advertisement for 'Natura Dent' dental services. It features a smiling woman's face, the text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tura Dent' at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he ad also lists services like dental implants,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Advertisement for 'DC Eye Clinic' (타이슨스 코너). It features a large '전안과' (Ophthalmology) logo and lists various eye treatments such as cataract laser surgery, glaucoma treatment, and diabetic eye care. The clinic is located at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and an email address: dceyeclinic@yahoo.com.

우리말 바꾸기

‘되세요’의 사용법

“행복한 주말 되세요!” 주말에 많이 주고받는 인사다. 이와 같은 ‘되세요’ 형태의 인사는 평소에도 많이 사용한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이는 ‘~되세요’는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되다’는 “커서 의사가 되다” “개과전선해 착한 사람이 되다”에서와 같이 어떤 지위나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를 명령형으로 바꿔 보면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라” “(너는) 개과전선해 착한 사람이 되어라”와 같은 형태가 된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역시 “행복한 주말이 되다”를 명령형으로 바꾼 문장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행복한 주말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

듣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 “(너는) 행복한 주말이 되어라”가 되는 셈인데, 듣는 이가 ‘의사’나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행복한 주말’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 된다.

그럼 ‘주말’ 한테 ‘행복하라’고 요구하는 말일까. 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덕담이나 인사말은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좋을까.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기쁨 가득한 한 해 보내세요”와 같이 ‘보내세요’ 형태로 쓰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마이클 이 특별칼럼 ⑦

한국을 살린 이승만의 인맥 ‘맥아더, 덜레스, 빌리 그래햄’



마이클 이 박사 전직CIA요원 시사평론가

이승만은 ‘Japan Inside Out’ 이 출판 된 후, 그 여세를 몰아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학자들과의 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육군소령 맥아더이다.

후일 6.25동란 때 한국을 지켜준,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바로 그 맥아더다. 맥아더의 아버지도 육군 장성이었다. 그는 구한말 고종 때 조선을 방문하였고 고종은 그에게 국보급 향로를 선물 하였는데 그것을 가보로 소중히 여기다가 죽을 때 아들에게 유물로 넘겨주었다.

아들 맥아더도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태평양 전쟁 때에도 자기 숙소에 두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투 중에 부관의 실수로 그 물건이 상실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기념식장에 대통령 이승만은 오랜 친구인 일본주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초청 하였다. 그런데 그때 맥아더 원수는 80개국의 기자단을 이끌고 방한하였다. 그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본실된 향로와 동급의 국보 향로 세 개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 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각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맥아더 원수는 너무나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축사에서 장군처럼 연설하지 않고 목사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영원하기를 기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겠노라고 다짐 하였다. 그의 축사연설 내용은 1948년 8월 16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미국은 과거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특별 예산이나 추가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한국 전쟁 때에는 특별예산을 책정 하였다. 그 돈으로 전후복구 사업과 10년간 구호물자를 풀어 한국경제를 지원하였다.

이는 분명히 이승만의 대미외교의 결실이다.

제지원을 받은 유일한 케이스이다. 그때 임시정부 요인들의 절반 이상이 친소성향의 인사들이었다.

이승만은 절대로 그 돈을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 60만 루블이 들어왔으나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자세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공산당의 정체를 비판한 세계최초의 반공논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논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모든 소득과 자산의 평등분배다. 평등분배는 생산성경쟁과 창의를 저해하고 결국은 문명발전을 파괴하며 인간은 영혼과 생명이 없는 독재자의 소지품으로 변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 1989년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연설에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승만 박사와 거의 동일한 공산주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승만 보다 66년 뒤늦게 그가 공산주의 모순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련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2000만 명이 아사하고, 중국에서는 3800만 명이, 북한에서는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소련이 그리스와 터키를 침략하고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1947년 3월 12일에 (트루먼 닥트린)을 선포할 때까지 미국도 이승만 만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 이승만은 30년 전에 벌써 그 일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정부까지도 좌우합작의 합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건국직전 남북합작 국론이 국내에서 춤추고 있을 때, 미국군정청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이승만이 절대반대의 입장을 고집할 때 군정장관 하지중장은 이승만을 고집 세고 골치 아픈 늙은이라고 미워하고 그를 한 달 간 가택연금 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낙종 (박지원의 할아버지) 일당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자 하지중장도 이승만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 하였다.

독자마당

색소폰 연주와 건강

최근 노후의 취미 활동으로 악기를 배우려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100세 시대를 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기 연주는 취미 활동은 물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색소폰도 많은 시니어가 취미로 배우고 싶어하고 또 관심을 가진 악기다. 내 경험상 색소폰을 연주하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다.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연주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과 우울함도 사라진다. 이 밖에도 연습을 위해 악보를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

력도 생겨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색소폰은 연주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폐 기능 향상에 좋다. 색소폰을 연주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하고 장시간 고른 호흡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늘어난다. 폐활량이 좋아지면 폐 기능 향상 효과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색소폰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색소폰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본인에게 맞는 색소폰의 선택이 가능하고 흥미도 더 생기기 때

문이다. 색소폰은 크게 소프라노,알토,테너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높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고, 알토는 중간 및 고음 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테너 색소폰은 중저음의 호소력 있는 소리를 낸다.

색소폰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악기다. 주변에 찾아보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 강좌도 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위해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색소폰만큼 좋은 악기도 없다고 생각하다. 색소폰을 배워 취미생활도 하고 개인의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멋진 색소포니스트가 돼보자.

리처드 정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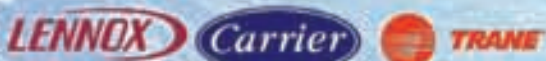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중양 Satur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대표전화 : (703)281-9660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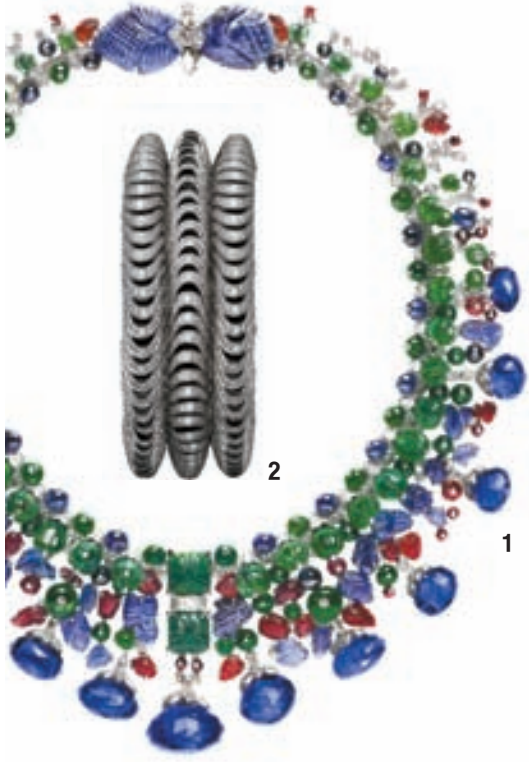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Saturday, May 4, 2024 C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의 전시장 모습. 오랜 시간을 머금은 일본 오야석이 채석장처럼 거친 느낌을 연출해 내고 있다. 불상 제작 장인이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깎아 만든 토르소에 걸린 까르띠에의 네크리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까르띠에 혁신적 디자인, 시공 초월한 마법에 홀리다



1 까르띠에 두피 프루티 힌두 네크리스. 1936년 재봉틀 기업 상어의 상속녀 데이지 펠로즈가 처음 주문 제작했다가 63년 리디자인 됐다. 2 다이아몬드가 빼곡히 세팅된 브레이슬릿(2017 제작). [사진 까르띠에]

중양일보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시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Cartier, Crystallization of Time)'이 지난 1일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까르띠에가 특별 협력사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6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된다.

전시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까르띠에의 예술적 소장품 30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소품으로서의 주얼리를 넘어 유럽 근대 장식미술의 양식과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 공예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해 보는 기회다. 2019년 일본 도쿄국립신미술관에서 처음 열렸던 전시의 재현으로, 국내에서 대규모 까르띠에 소장품 전시가 열리는 건 2008년 '까르띠에의 예술'전 이후 16년 만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전시 오픈िंग 행사가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렸다. 주최사인 중양일보와 서울디자인재단, 특별협찬사인 까르띠에 등 관계 인사들이 모여 테이프 커팅과 함께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박장희 중양일보 대표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까르띠에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이번 행사는 중양일보와 까르띠에가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란 인사말로 의미를 더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도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DDP는 한국 600년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자 과거와 현재·미래의 시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시간에 대한 공통적인 맥락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걸쳐 벌인 세계 곳곳의 전시는 국가 혹은 도시 주도의 공신력 있는 기관 주최로 열렸다. 지난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전시 '까르띠에, 이슬람 영감과 모던 디자인'은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장식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뮤지엄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서울 전시에선 까르띠에의 1970년대 이후 현대 작품 디자인과 더불어 20세기 시작의 초기 작품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을 축으로 ▶소재의 변신과 색채 ▶형태와 디자인 ▶전 세계를 탐구하는 호기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까르띠에의 혁신적인 디자인 세계를 탐구한다. '소재의 변신과 색채' 챕터에선 소재와 색채를 통한 까르띠에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한 조망한다. 윤경희 기자

중양일보·서울디자인재단 공동 주최

지난 35년간 까르띠에가 총 41번에

▶4면 '까르띠에'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자동차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Partner 보험회사
Nationwide Mercury Insurance Progressive National General
Stillwater Berkshire Hathaway Safeco Insurance The Hartford AIG

숲·사슴 그리고 인간들...악은 이토록 모호하다



김정의 영화 리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Evil Does Not Exist)

세계 3대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모두 수상한 일본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영화를 얘기할 수 없다. 2021년 칸영화제와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수상작 '드라이브 마이 카'에 이은 하마구치의 최근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충돌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인류와 자연의 괴로운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관찰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하마구치의 성찰이기도 하다.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사회의 구차한 현상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신비주의적 렌즈로 조명한다.

[Sideshow]

사회의 구차한 현상을 하마구치 감독은 신비주의를 동원해 조명한다.

도쿄 근교의 산촌. 6000명에 불과한 주민들은 모두 2차 대전 이후 이 마을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개척한 정착민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군 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목가적 삶을 살아간다. 이곳에 '플레이모드'라는 도쿄의 연예기획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캠핑촌을 설립하려 하고 파

견 나온 두 명의 직원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언덕 꼭대기에 우물을 파 여름 캠핑족들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플레이모드의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맑은 물이 오염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 마을 사람들의 삶이 영향받을 게 두렵다.

캠핑촌 설립에 반대하는 분노의 선

봉에 타쿠미(오마카 히토시)가 서 있다. 8살짜리 딸 하나와 살고 있는 그는 말이 없고 무뎠다. 학교 수업을 마친 딸을 데리러 가야 하는 걸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는 아빠의 건망증을 알고 있는 하나는 산길을 걸어 혼자 집으로 돌아온다.

아빠와 딸은 중간에서 만나 눈길을 걸으며 나무를 관찰하고 사슴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냥 나온 도시 사람들이

사슴을 향해 발사하는 총소리가 자주 들어온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안톤 체호프의 총 이론. "1장에서 총이 등장했다면 2장, 3장에서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는.

타쿠미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사슴은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딸에게, 그리고 플레이모드의 두 직원에게 말한다.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데 3분의 2를 소비한 영화는 후반부에 들어 하나가 실종되는 사건을 맞는다. 사슴에 얽힌 신비주의가 영화를 덮어버리고 충격적 결말로 이어진다.

관객은 그제야 감독이 영화 제목에서 암시했던 악마의 존재를 상기한다. 시골 사람들을 돈으로 회유해 테마파크 사업으로 이윤을 챙기려던 도시 사업가들, 그들이 악마? 시골은 선하고 도시는 악하다? 하마구치의 의미는 악마는 결코 그런 일차원적 의미에 있지 않다. 악마의 모호한 존재, 존재하지 않음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악마. 방금 지나간 장면, 그게 뭐였을까? 결론 없이 끝나는 영화,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영화다.

김정 영화평론가

이집션 시어터 이창동 회고전

박하사탕 (Peppermint Candy)

아메리칸 시네마테크가 한국의 대표적 작가주의 감독 '이창동 회고전'을 열고 있다. '초록물고기'(1997), '박하사탕'(1999), '밀양'(2007), '시'(2010), '오아시스'(2002), '버닝'(2008) 등 4K 화질로 복원된 이 감독의 대표작 5편이 지난달 27일에 시작해 19일까지 소개된다. 이 감독의 영화는 세밀한 각본과 시적 영상, 복잡한 캐릭터로 특징지어진다. 종종 고립된 주인공들을 감정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그의 작품들은 비극적 멜로드라마와 네오 누아르의 성향을 띤다.

'시네마테크'는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그 자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영화 도서관이자 재개봉관이다. 거장들의 미개봉작을 발표하기도 하고 배우, 작가들의 명작들을 모아 기획전을 상영하기도 한다. 강연회, 대담을 통해 영화의 숨은 가치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필름 수집과 보존, 복원 사업 등도 한다. 고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고전들이 주를 이루지만 보통 예술영화(Art Films)로 불리는 작품들이 많이 선정된다.

최초의 시네마테크는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인 앙리 랑글루아와 조르주 프랑주가 만든 영화 클럽에서 시



아메리칸 시네마테크의 이창동 회고전에서 상영되는 '박하사탕'.

[American Cinematheque]

작됐다.

1971~1983년 매년 개최되던 영화제 '필멕스(Filmex)'의 '파생물'로 1981년에 창설된 '아메리칸 시네마테크'는

1985년 첫 번째 상영 시리즈를 시작으로 LA의 시네파일(cinephile)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LA지역에서는 에어로 시어터(Aero Theatre), 이집션 시

어터(Egyptian Theatre), 로스펠리스(Los Feliz) 시어터 등 세 곳에서 영화 상영 및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김정 영화평론가

① 워싱턴 중영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리스팅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한국내서 연구진 11명 꾸려 함께 막스플랑크 갑니다”

(독일 기초과학연구원)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단장에 선임돼 화제가 된 차미영(44) KAIST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장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22일 제15회 흥진기 창조인상 과학기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 교수가 일하게 될 막스플랑크연구소는 독일은 물론 세계에 손꼽히는 대표적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1911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31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단일기관으로 세계 최다다. 한국이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설립할 당시 롤모델로 꼽은 것이 바로 막스플랑크연구소다. 차 교수는 그 IBS에서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사이언스그룹 CI연구단장도 맡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와 만난 차 교수는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부터 전했다. 6월 초 독일 서부 보훔의 막스플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 연구소로 떠날 예정인데, 함께 연구하던 IBS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4명은 물론 IBS 연수학생 신분인 KAIST 박사과정 제자 7명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가 막스플랑크연구소 단장에 선임된 것도 처음이지만, 단장이 되면서 모국에서 10명 이상의 팀원을 꾸려 함께 소속을 옮기는 것도 전례가 없다. IBS 연구원은 막스플랑크 소속 박사후연구원으로, KAIST 학생은 인턴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어간다. 이쯤 되면, 국내 연구그룹 하나가 통째로 이민을 가는 셈이다.

“막스플랑크 단장에 선임되면서, 단원까지 꾸려 출국하는 건 뜻밖이다.”

“깜짝 놀라긴 하더라. 대개 신입 단장이 한 두 명의 연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10명이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막스플랑크에서 연구진을 꾸리는 건 단장의 고유 권한이다. 좋은 연구인력을 뽑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IBS 내 우리 그룹에는 정말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들을 놓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박사과정인 주니어 연구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IBS에서 연수학생 신분으로 있는 박사과정 제자들이 독일로 같이 가는 이유다. IBS 연구진 외에도 독일 현지 연구진도 두 명 뽑아놓은 상태다.”

중학교까진 늘 1등, 과학고 입학하고는 꼴찌

“막스플랑크연구소 단장의 고유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무한하다. 연구원을 뽑는 것뿐 아니라, 연구주제를 정하는 것 등에 무한한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을 단장을 믿고 맡긴다. 막스플랑크에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20억원, 만 67세 정년까지 계산하면 500억원에 달한다. 물론 내 연봉을 제외하고서다. 우리가 하는 게 이론 연구라 큰 장비가 필요 없지만, 막스플랑크에선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배도 사줄 정도다. 물론 연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평가는 안 받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단장에 선임된 차미영 기초과학연구원 CI연구단장(KAIST 교수)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평가는 있기는 한데, 멘토가 가이드를 해준다는 느낌 정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욕망이 많은 분이 단장으로 오니 실적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도중에 연구주제를 바꾸는 것도 단장의 자유다. 이게 하르나크 원칙이라고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율의 정신이다. 대신 모델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단장 선임 과정에서 윤리 전문가와 아침부터 종일 인터뷰를 해야 했다.”

“독일에 가면 무슨 연구를 하나.”

“‘인류를 위한 데이터 과학’ 연구그룹을 이끌 예정이다. IBS에서 하던 연구를 그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

차 교수는 허위정보와 빈곤, 재난 담지 등과 같은 어려운 사회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계산방법을 개발하는 과학자다. 세계관세기구(WCO)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위장 반입, 원산지 조작 등 세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위성 영상 빅데이터 분석 AI기술을 개발하고, 북한 등



차미영 교수(앞줄 왼쪽 넷째)와 함께 연구하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4명과 KAIST에서 박사과정 중인 7명이 차 교수와 함께 막스플랑크연구소로 간다. 김성태 객원기자

빈곤국의 경제지표를 6㎤ 단위에서 자세히 추정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땀 각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 가짜뉴스가 여러 나라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도영 IBS 원장은 “차 단장의 연구는 학계는 물론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며 “세계관세기구와 유엔을 비롯한 NGO에서 활용되는 ‘액서넬 기초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과 사회 파급력을 선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단장이 될 수 있었나.”

“2022년 겨울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저의 첫 국제 심포지엄이 축구 선수 차두리가 있던 독일 보훔에서 열렸다. 설립한 지 몇 년 안된 막스플랑크 보안연구소가 소개도 할 겸 관련 연구자를 초대해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단장을 뽑기 위한 스크리닝 인터뷰였다. 심포지엄이 끝나는 날 아침에 디렉터 두 분과 식사를 했는데 사실은 단장 자리를 뽑는 인터뷰였다. 당신을 1순위로 정했으니 지원해 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막스플랑크가 외국인인 당신을 왜 단장으로 뽑았을까.”

“독일 국적 단장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넓혀가려고 하는 분위기다. 여성 단장도 많지 않아 확대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막스플랑크는 그 분야 세계 최고로 잘하는 연구자를 모시는 것이 목표다. 꼭 국적이 없애지지 않는다. 세계가 변하고 있지 않나. 독일은 이미 이민자를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차 교수는 초·중·고와 대학 박사과정까지 모두 국내에서 마친 ‘토종 과학자’다.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대 교수인 부친을 따라 3살부터 춘천에서 자랐다. 강원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졸업(수료)하고 1997년 KAIST 전산학과에 입학, 석·박사까지 마쳤다.

“타고난 천재인가. 학생 땀 어떤 사람이었나.”

“그건 아니다. IQ는 그냥 중상위권이었다. 춘천에서 IQ가 제일 높아 유명했던 친언니와 달리 나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타입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자율주도형. 학원은 과학고 입시 전에 두 달 다닌 게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까진 늘 1등이었는데 과학고에 입학하고 꼴찌가 됐다. 그래도 졸업(수료)할 땐 수석은 아니지만, 전교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다.”

“어떻게 따라잡았나.”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과학고 공부가 너무 힘들었다.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2년 만에 수료하게 됐다. 내가 보면 집요한 성격이 있다. 보고서를 준비할 때도 자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 벌떡 일어나 컴퓨터 켜고 수정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게 있나.”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한다. ‘올해 목표 60권 읽기’ 이런 목표도 세운다. 다양하게 책을 읽지만, 소설보다는 『역사학자가 쓴 100년 후』라는 책처럼 통찰력을 주는 분야를 좋아한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책도 자주 읽는다. 음악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지금은 플루트도 배우고 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단순하고 재미없는 루틴(routine)이다. 신기한 게 새벽 5시면 알람 없어도 눈이 떠진다. 아마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 것 같다. 일어나면 세수도 안 하고 곧바로 서재로 달려간다. 줄 질 만한 것을 찾을 때까지 책을 읽는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책 5권을 10페이지씩 읽는다. 뭐 이런 식이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밑줄을 치다 보니 책이 너털 너털해진다. 운동은 스쿼트로 아침에 50번, 저녁에 50번을 한다. 퇴근은 오후 7~8시쯤,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 이후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12시에 잠든다. 하루 5시간 자는 셈인데 익숙하다. 대신 주말에는 오전 8시쯤 일어난다.”

독서 정말 좋아해... 유튜브 중독성 강해 기피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안 한다고 들었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멀리한다. 유튜브나 네이버 앱 같은 건 아예 지운다. 인터넷 쇼핑이 필요할 땐 앱을 깔았다가 지워버리는 식으로 한다.”

“삶의 신조가 있나.”

“신조라고 하기에 조금 거창한데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미니어처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로빈 샤르마가 쓴 『변화의 시작 5AM 클럽』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

최준호 과학 전문가, 논설위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마리 앙투아네트와 세번째 만남... 찾았죠, 나만의 마리”

23년차 뮤지컬 배우 김소향

“철없는 왕비가 각성한 부분에 집중
발성·눈빛·목소리 다 바꿔 표현”
가장 어려운 넘버는 ‘최고의 여자’

말 많고 탈 많은 공연계에서 김소향(44)은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는 배우다. 2001년 뮤지컬 ‘가스펠’로 데뷔해 어느덧 23년 차. 앙상블로 7년 일하며 바닥부터 입지를 다져 이제는 믿고 보는 대극장 배우 반열에 올랐다.

그가 지난 2월부터 출연 중인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1700년대 프랑스 왕비였던 실존 인물 마리 앙투아네트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마리 앙투아네트와 허구의 인물 마그리트 아르노의 대립을 다룬다.

작가 미하엘 쿤체,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가 만든 뮤지컬은 2006년 일본에서 초연했고, 국내에선 뮤지컬 제작사 EMK가 2014년 처음 선보였다. 김소향의 마리 앙투아네트 연기는 2019년, 2021년을 거쳐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제야 마리를 알 것 같다. 나만의 마리를 찾았다는 느낌도 든다”고 했다. 공연은 26일까지 서울 구로구 디큐브링크아트센터에서 계속된다.

-공연계에서 성실한 배우로 유명하다.
“팬들이 17만원(VIP석 기준) 내고 뮤지컬 보러 오시는데 당연히 성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궁에서 쫓겨난 마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전혀 몸을 사리지 않던데.

“100번 넘게 같은 역할을 한 만큼 나뻑 노하우가 있다. 마리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프랑스로 시집왔다가 누명을 쓰고, 아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기 중인 김소향. 로코코풍의 화려한 드레스와 베르사유궁을 재현한 무대가 눈을 즐겁게 한다.

들을 뺏기고 결국 단두대에 오른다. 감정 변화가 중요하니까, 늘 정신을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 몸을 던지는 장면도 당연히 계산해서 한다.”

-오열하면서 노래하는데 가사가 또렷하게 들린다.

“어떤 배우는 연기가 좋고, 어떤 배우는 음역이 좋고 그런 장점이 하나씩 있지 않나. 내 장점은 ‘한’을 잘 표현하는 거다. 절규하면서 노래하는 것. 한서린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걸 잘하는 게 김소향이라고 팬들이 생각해주는 것 같다.”

-성대 관리가 어렵겠다.

“목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울면서 지르는 연기를 하면 목에 무리가 가는 게 정상인데 무대에선 괜찮다. 신기하게도 목이 적응한 것 같다. 마그리트 역의 주현(옥주현)이도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하냐’며 신기해한다.”

-‘사치하다 죽은 왕비’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인데, 특별히 공들인 장면이 있다.

“마리가 변하는 모습, 철없는 소녀가 각성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 ‘목걸이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발성이나 눈빛, 목소리가 전부 달라져야 한다. 이 변화가 설득력이 없으면 관객들이 감동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사진 EMK]

-그 변화를 표현하는 넘버가 ‘독사’인가. (마리는 사치스러운 목걸이를 샀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넘버를 부른다)

“맞다. ‘독사’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독사 부르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늘 ‘이제 시작이다’란 생각을 한다. 그 전까지는 해맑고 사랑스러운 느낌이라 큰 에너지가 들지 않는데, 독사를 부르면서 모았던 기를 다 분출한다. 누가 쳐들어오는 느낌으로 불러야 한다. (웃음)”

-가장 어려운 넘버는.

“‘최고의 여자’다.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는 남 몰래 페르젠 백작을 사랑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최고의 여자’인데 지르는 대목이 전혀 없다. 애매한 음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어렵다.”

-대극장 뮤지컬 주인공을 맡은 지 10년이 넘었다. 못해봐서 아쉬운 캐릭터가 있다.

“어떤 캐릭터를 못해봐서 아쉽다는 마음은 없다. 다만 앞으로 창작극을 더 하고 싶다. 창작극을 할 때는 캐릭터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있다. 극장 크기는 상관없다. 이번에 ‘마리 퀴리’가 런던에 가는데,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이다. 그런 작품을 더 하고 싶다. 못 해본 작품 중 매력 있다고 생각한 건 뮤지컬 ‘이프덴’과 ‘레드북’이다.”

-인간 김소향의 꿈은.

“막연한 생각이지만 글을 쓰고 싶다. 3년 전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열었는데, 뉴욕에 살며 겪은 일을 글로 써서 낭독했다.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을 보는 게 큰 감동이었다. 직접 글을 쓰고 그 작품에 출연도 하는 날을 꿈꾼다. 재능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꼭 글을 쓰게 해 달라고 할 거다.”

홍지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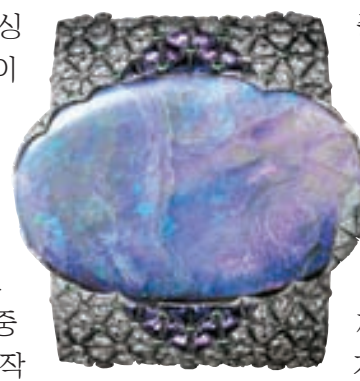
▶ 1면 '카르띠에'에서 이어집니다

20세기부터 다이아몬드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사용했던 플래티늄 활용법부터 다양한 유색 보석을 풍성하게 조합한 ‘뚜띠 프루티(Tutti Frutti, ‘모든 과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디자인까지 카르띠에의 하이주얼리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형태와 디자인’ 챕터에서는 순수한 선과 형태로 디자인

의 본질을 담아낸 ‘에센셜 라인’과 ‘스피어’, 건축 기법을 주얼리에 대입한 ‘뉴 아키텍처’ 등 작품을 통해 주얼리와 무관한 영역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의 영감이 탄생하는지 탐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범세계적인 호기심’ 챕터에선 세계의 문화,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1000년 나무로 만든 토르소 등 활용 300여 전시품 중 눈여겨 볼 작품도 파

로 있다. 재봉틀 회사 ‘싱어 그룹’ 상속녀인 데이비드 펠로즈가 1936년 주문·제작한 뒤 자신의 딸에게 물려줬던 ‘뚜띠 프루티 힌두 네크리스’, 그리고 189.345캐럿 오팔을 중심부에 세팅한 2015년 작 브레이슬릿(사진)이다. 지금껏 공개가 쉽지 않았던 작품으로, 관람



중 놓치면 안 되는 몇 안 되는 희귀 보석이다. 내부를 어두컴컴하게 연출해 숨 막힐 정도로 관객을 압도하는 전시 공간 디자인은 5년 전 동일한 주제의 도쿄 전시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 스키모토 히로시와 사카키다 토모유키 디렉터가 이끄는 신소재연구

소가 맡았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돌과 나무 같은 자연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연구하고 매칭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번 전시에선 일본의 오랜 오아석과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불상 조각 장인이 만든 토르소 등을 활용해 주얼리 작품과 조화를 꾀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중앙화동재단 부설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과 협력, ‘유산’을 상징하는 한국 전통 소재를 전시장 곳곳에 배치했다.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넌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Mother's Day

마더스테이 감사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김오곤 침향 녹용단

\$43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159.99**

광동 침향환

반개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199.99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통풍,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마스크

FromBIO

캐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안알라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이름 키즈10

키 10배 키우기

이름 황성주생식

독소배출/다이어트/혈액정화

징크크린 정

기왕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에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1oz \$40
4oz \$120

순도 100% 천연 황성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 팡

향풍정 홍삼 국내 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환씨환,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반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있는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중독성 없는 천연 수면제

류는 현재 진행형



“힘들었던 4월은 끝났습니다. 5월부터 다시 달려나가야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류현진(37)은 지난 30일 대전 SSG 랜더스전에서 승리 투수가 된 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메이저리그(MLB)에서 11년간 뛰다 올해 한화로 복귀한 그는 이날 6이닝 7피안타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해 KBO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한화의 후배 선수들은 류현진에게 물세례를 퍼붓고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면서 축제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 올해 입단한 19세 막내 황준서까지 합세한 ‘집안 잔치’였다. 류현진은 연신 도망 다니며 “하지 마!”를 외쳤지만,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동료들에게 그런 세리머니를 처음 받아봐서 정말 기분 좋았다. 경기 후 관중석으로 올라가 단상 인터뷰도 처음 해봤는데, 역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다”며 웃어 보였다.

류현진은 한화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지닌 투수다. 2006년부터 2012년

KBO 통산 100승 금자탑
메이저리그 11년 뛰고 국내로 유턴 기대속에 복귀... ABS 등 시행착오도 22승 더 쌓으면 한·미 통산 200승 “떨어진 팀 순위 상승이 최우선 목표”



후배들의 축하를 받는 류현진(위 사진) 100승을 도운 노시환(오른쪽)에게는 경기 후 직접 고기를 먹여줬다. [뉴스, 류현진 SNS]

까지 부동의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98승(52패)을 거두고 MLB로 떠났다. 올해 큰 기대 속에 복귀했지만, 시즌 첫 6경기에서 1승만 거두는 어려움을 겪었다. 3월 23일 LG 트윈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5실점(2자책점)으로 부진했고, 지난달 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4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9개를 맞고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실점(9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수원 KT전에서도 5이닝 7실점(5자책점)으로 흔들렸다. KBO리그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에 적응하느라 시행착오도 겪었다.

류현진은 결국 4월의 마지막 날, 복귀 7번째 경기에서 어렵게 통산 100승째를 채웠다.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시절이던 2021년 8월 22일(한국시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이후 2년 8개월 만에 100구 넘게(103개) 던지는 투수가 됐다. 그는 “박승민 투수코치께서 ‘다른 투수도 (ABS 판정에) 내색

하지 않고 던지는데,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돌아보면 내가 너무 신경을 쓰면서 불넷도 내주고 어려운 경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내 투구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올 시즌 남은 등판에서도 계속 이 경기만큼만 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류현진이 100승을 거두는 날엔 흥미로운 승부가 많았다. 과거 ‘천적’이었던 SSG 최정은 12년 만에 류현진과 다시 맞붙어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SSG 추신수는 MLB 시절 이후 처음으로 대결해 3타수 2안타(2루타 1개)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솔직히 최정 선수는 의식을 많이 했다. 첫 타석에선 미국 가기 전엔 안 던지던 컷패스트볼(커터) 위주로 던졌다. 그런데 초구 이후에는 잘 참더라”며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또 어떻게 대결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신수 형과도 신경 써서 승부했고, 던질 수 있는 공을 다 던졌다.

하지만 형이 두 번째 안타 때 2루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나이기도 있는데 부상을 조심하셔야 하지 않나.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류현진은 이제 한화의 재도약에 앞장설 생각이다. 그에게 이달의 목표를 묻자 “4월에 기록한 패배를 승리로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한화는 지난 3월 7승 1패로 1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4월 성적은 6승 17패로 승패 마진이 -11에 달했다. 팀 순위도 8위까지 처졌다. 류현진은 “이제 안 좋았던 4월은 끝났으니, 5월부터 또 열심히 달려나가야 한다. 팀이 우선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매 경기 선발 투수 역할을 잘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 통산 200승은 빨리하고 싶다”고 했다. 류현진은 한국에서 100승 55패, MLB에서 통산 78승 48패를 각각 기록했다. 통산 성적은 178승 103패다. 앞으로 22승을 추가하면 200승 고지를 밟는다. **배영은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izer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 ~ 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 캡슐만 복용하면 1 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맹전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어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여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물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톰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팡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 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쟁이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 중앙일보

<p><세탁/엘터레이션></p> <p>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p> <p>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p> <p>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p> <p>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p> <p>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도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p> <p>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p>	<p>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p> <p>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p> <p>EV Electric Co. 차, 배네트,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p> <p>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p>	<p>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p> <p>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p> <p>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p>	<p>연락처 :301-385-3535</p> <p>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p> <p>센터빌 타운홈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p> <p>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p> <p>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p>	<p>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 8853</p> <p>클리프턴 유니온빌 물부근 싱글홈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 732- 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홈 방1개, 주차넉넉 703-965-2343</p> <p>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뒷뜰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p> <p>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p> <p>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p>
<p><정비/바디샵></p> <p>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p> <p>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p> <p>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p> <p>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p> <p>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p> <p>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p> <p>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p>	<p><기타 구인/구직></p> <p>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p> <p>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p> <p>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p> <p>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p>	<p>부동산 렌트</p> <p><싱글/타운하우스 렌트></p> <p>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세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p> <p>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p> <p>아난데일 홈디오 옆 위치.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덩,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p>	<p><콘도 렌트></p> <p>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p> <p>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p> <p>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리앙 댕턴,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p> <p>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p>	<p><방렌트></p> <p>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가구일체/취사가능. 5월 30입주. 703-350-1986</p> <p>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p> <p>애난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위실, 키친 완비 571-232-6052</p> <p>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p>
<p><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p> <p>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p> <p>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p> <p>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p>	<p>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p> <p>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p> <p>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p> <p>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폴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p> <p>애난데일 인쇄회사 폴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p>	<p>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p> <p>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p> <p>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p> <p>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p> <p>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p>	<p><방렌트></p> <p>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p> <p>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실,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튼스빌 240-413-2738</p> <p>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p> <p>노스 포토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p>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No HOA
\$470,000
1층, 시니어 생활편리 (방 3),
0.23 에이커 대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방 1, 화 1,
병원, 샵핑몰, 그로서리 등 근접 용이




1층 콘도
\$310,000
방 2, 화 2, 전체 실내 Hardwood 구조
저렴한 콘도피 \$260 (Water, Trash 포함)
주차 여건 좋음, 샵핑몰 Costco,
병원 등 인접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1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20

% 할인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석제빙(결어서 출하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리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리티 리얼타임 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
 Hotdeal.Koreadaily.com

LA/TOWN 213.368.2611
 2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10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분하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윤활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루 샵
 Up to 40% 혜택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루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루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SOLD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 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독점

새로 리모델한 타운하우스

Woodbrige \$2,400

엔드 유닛 타운 홈, 차고1



Woodbrige \$2,6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